



전남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남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전남대 교수들이 2일 오후 전남대 5·18기념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

광주·전남 각계 “만장일치로 파면을”

‘尹 파면’ 삭발식...해남·완도·진도 의원 21명 동참
“尹 파면 선고해야”...전남대 교수 301명 시국선언
내일尹 탄핵 선고, 광주 5·18민주광장서 생중계

광주·전남 학계와 정치권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를 비롯한 전남대 교수들은 2일 오후 전남대 5·18기념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헌재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밤을 목격한 국민은

현재의 판결을 통해 무너진 일상과 법치,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대했다며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며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고 인내한 국민은 현재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전 국민이 목격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세력의 준동

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이 지난 1일 제안한 현재의 파면 선고 촉구 서명에는 이날 현재까지 전남대 교수 301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지원)가 2일 오후 2시 해남 군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삭발식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것인지, 제2의 계엄 내란이 계속되는냐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

다”며 “만장일치 파면이 공정과 상식이며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해남·완도·진도 군민과 국민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서 삭발식이 거행됐다.

삭발식에는 해남·완도·진도 3개 군에서 전남도의원, 군의원 21명이 동참했다.

한편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2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김도기 기자

광주세계양궁대회 결승전, 6일간 열린다

결승전 9월7~12일 5·18민주광장서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6일 동안 펼쳐진다.

광주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대회’ 결승전은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양궁대회 결승전은 통상 3일간 진행됐지만 이번 대회는 1931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6일간 일정으로 확대돼 관중들의 볼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국제양궁장 등에서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은 결승전 무대가 있는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활 시위를 당긴다.

광주세계양궁대회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에 각각 남녀 개인, 단체전, 혼성 등 총 10개의 메달이 걸려 있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결승

전도 오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현재 세계양궁대회는 예비 엔트리 등록이 시작됐으며 27개국 335명의 선수와 임원(팀매니저·코치·의료인력), 세계장애인대회는 12개국 132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신청했다.

조직위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은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주와 평화의 상징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세계양궁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세계에 문화·역사·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며 “결승 일정이 늘어난 만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광주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선경 기자

헌재 주변 150m 전면 통제...차벽 차단

탄핵 선고일 헌재 반경 ‘150m’ 진공화...전면 통제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반경 150m 구간을 ‘진공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면 통제를 나섰다. 집회 충돌과 테러 우려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와 대화경찰, 형사기동대 등이 출동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를 기해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원회관·계동사육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했다”며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차단선이 너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통제 범위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경찰은 오는 3일까지 농성자들이 차단선 밖 집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고당일 경찰은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0여대 등 총 2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며 헌재 내부에는 경찰특공대 20여명을 배치해 테러 상황에 대비한다.

헌재와 광화문 외에도 대통령 관저와 종로공관, 외교시설, 국회,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을 추가 배치한다.

선고 당일 예상 집회 인원수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만~10만명 규모로 각 단체가 신고했지만, 신고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파도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사동에서 수원회관 구간 등 찬반 진영 접점에는 완충구역을 설정해 충돌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뉴스

성장 느린 영유아 맞춤형 지원 2면

탄핵 심판 결정문 손질중 3면

먹거리 다 올라...물가 들썩 4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업,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

건설 폐기물 처리 전문 광성환경

합리적인 가격! 깔끔한 마무리! 빠른 처리속도!



공장 외부



공장 내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반

철거 공사

GS

환경을 생각하는 유한회사 광성환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평리 969-5 문의전화. 061-537-4775